

아간 서사(수 7장)의 역헤렘(Reverse Hērem) 해석: 헤렘 집행자의 헤렘화와 공동체 정화의 신학

주은평(성결대)

1. 서론

여호수아 7장은 구약성경에서 헤렘 신학이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는 서사이다. 헤렘이란, 하나님께 봉헌됨으로써 인간의 사용 영역에서 영구히 제거되는 신성 전유(divine preemption)를 의미한다. 이 서사의 신학적 정점은 아간의 탐욕이나 공동체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여호수아 7장 12b절의 선언인 “이스라엘 자손이 헤렘이 되었다”에 있다. 헤렘을 집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스스로 헤렘의 대상이 되는 이 역전이 여호수아 7장 해석의 중심임에도, 이를 독립적인 신학적 분석 범주로 체계화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 역전 현상을 ‘역헤렘’이라는 하나의 해석학적 모델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때 ‘역헤렘’은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는 개념적 장치임을 미리 밝혀 둔다.

헤렘 연구의 가장 포괄적인 재검토를 시도한 스텐(Philip D. Stern)은

www.kci.go.kr

여호수아 7장 분석에서 여호수아 6장 18절의 히필 동사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이 형태는 타자에 의해 헤렘화됨을 의미하는 호팔형과 달리 자신의 행위로 헤렘이 됨을 의미한다.¹ 이 문법 분석은 아간 서사의 헤렘화가 수동적 오염이 아니라 능동적 침투인 헤렘 물건 소유를 통해 신성 영역에 진입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스텐은 이를 세계 질서(Weltordnung) 패러다임에 배치할 뿐, 역헤렘이라는 독립적 분석 범주로 발전시키지 않았다.

근래 연구들도 이 현상에 산발적으로 근접했다. 글랜빌(Mark R. Glanville)은 헤렘 본문들을 이스라엘 집단 정체성 구성의 기제로 읽는 사회, 언약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의 핵심 논지는 신명기 역사서의 헤렘 텍스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을 지향하며, ‘가나안’은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지시하는 은유적 범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그는 수 7:12a를 직접 인용하며 아간 서사의 핵심이 “헤렘은 불순종의 결과이며 오염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관찰했다.² 먼로(Lauren A. S. Monroe)는 이스라엘, 모압, 사바의 전쟁, 헤렘 전통을 비교 분석하면서, 고대 근동의 헤렘이 신, 백성, 땅의 삼자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민족 정체성 구성의 수단임을 논증한다. 이 비교 전통사적 틀 안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헤렘을 초래했다고 명시하였다.³ 셔록(C. Sherlock)은 헤렘 어휘의 의미론적 분석에 집중하여, 헤렘을 마술적 전염이 아닌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물

1 Philip D. Stern, *The Biblical Hērem: A Window on Israel's Religious Experience*, (Brown Judaic Studies 211; Atlanta: Scholars Press, 1991), 148-149. 호팔이었다면 타자에 의해 헤렘화됨을 의미했겠지만, 히필은 자신의 행위로 헤렘이 됨을 의미한다.

2 Mark R. Glanville, “Hērem as Israelite Identity Forma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83 (2021), 571.

3 Lauren A. S. Monroe, “Israelite, Moabite and Sabaean War-Hērem Traditions”, *Vetus Testamentum* 57 (2007), 322.

을 나타내는 용어로 규정한다. 그는 이 관계론적 틀 위에서 이스라엘 자신이 헤렘이 되었다고 결론부에서 선언했다.⁴ 릴리(J. P. U. Lilley)는 헤렘 어휘의 의미 범위를 분석하는 가운데 신명기 7장 26절에서 헤렘 물건의 소유자가 헤렘으로 끌어당겨진다는 메커니즘을 각주 수준에서 포착했다.⁵ 그러나 이 연구들은 각기 다른 관심사인 정체성 형성론(글랜빌, 먼로), 언약 관계의 의미론(서록), 어휘 의미 분석(릴리)에 흡수됨으로써 현상은 포착했으나, 그것을 수 7장을 해명하는 독립적 분석 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이들은 모두 헤렘의 집행자인 이스라엘이 헤렘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역전 자체를 분석의 초점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상 인지와 체계적 해명 사이에 공백이 남아 있다.

본 논문은 이 공백에 응답하여 역헤렘(Reverse Hērem)을 여호수아 7장의 신학적 역전 구조를 해명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적 분석 틀로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본문의 신학적 서술에 대한 분석, 서사 분석, 정경 내적 상호 텍스트성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⁶ 국내 헤렘 연구사의 정리로는 김동혁의 포괄적 검토가 있다.⁷ 신명기 역사(여호수아~열왕기)의 편집 신학적 전통에 관해서는 크로스(Frank Moore Cross)가 DtrH를 두 편집층인 요시야 개혁기의 Dtr1

4 C. Sherlock, "The Meaning of HRM in the Old Testament",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1983), 21.

5 J. P. U. Lilley, "Understanding the Herem", *Tyndale Bulletin* 44.1 (1993), 176, n. 32.

6 정경 내 상호 텍스트성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281-291을 참조하라.

7 국내 헤렘 연구의 포괄적 검토로는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31-154를 참조하라. 김동혁은 그린버그를 따라 헤렘 대상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포함됨을 지적하고, 야간을 헤렘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규정한다(147). 역헤렘 범주가 국내 선행 연구에서 이미 현상 수준으로 포착되었음을 보여 준다.

과 포로기의 Dtr2로 구분하는 이중 편집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뢰머(Thomas Römer)는 이를 포함한 DtrH 형성 논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집층 귀속 문제의 복잡성을 드러낸다.⁸ 본고는 이러한 편집층 논쟁을 참조하되, 역헤렘의 논리가 여호수아 6장 18절의 경로부터 7장 전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구조가 특정 편집층에 국한되지 않고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신학 논리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본문의 형성 단계보다 최종 본문이 드러내는 신학적 통일성을 우선적 분석 단위로 삼는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역헤렘의 일차적 유효 범위는 아간 서사(수 7장)를 정점으로 한다. 이 범위에서는 헤렘 어휘와 더불어 אָגָן(아칸, 아간)이라는 이름 자체에 새겨진 언어유희가 함께 확보된다. 역대상 2장 7절은 동일 인물을 אָקָר(아카르, “괴롭히는 자”)로 표기하는데, 이는 후대 전승이 그의 이름 자체를 죄와 결부하여 재해석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에스라서와 열왕기서로의 확장은 헤렘의 유형별 성격이 다르므로, 본고는 5장 2) 거시적 적용 절에서 그 적용 가능성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한다.

2. 역헤렘(Reverse Hērem)의 분석 범주 정의

1) 헤렘의 유형과 제의적 본질: 신성 전유와 세계질서 수호

헤렘은 구약성경 안에서 단일한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첫째, 정복 전쟁 헤렘(수 6장)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어 신성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집행자의 지위에 있다. 둘째,

8 Frank Moore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74-289. 신명기 역사 형성 논의는 Thomas Römer,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London: T&T Clark, 2005), 13-43을 참조하라.

처벌 헤렘(신 13:12-18)은 이방 신을 섬긴 이스라엘 내부 성읍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약 위반이 헤렘 집행의 근거가 된다. 셋째, 공동체 제재 헤렘(삿 21:11)은 총회 불참이라는 공동체적 의무 위반에 대한 내부 처벌로서, 역전 구조 없이 단방향으로 집행된다. 넷째, 포로 귀환기 자기 정화 헤렘(스 10:8)은 헤렘 어휘가 전쟁 맥락을 벗어나 공동체 내부의 언약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제재로 전용된 사례다. 이와 같이 여러 유형의 헤렘이 그 적용 맥락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며, 본고가 다루는 역헤렘은 이 가운데 특정 유형, 곧 헤렘을 집행해야 할 공동체가 스스로 헤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구조적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역헤렘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렘의 제의적 구조를 해명해야 한다. 스텐은 헤렘을 단순한 진멸 명령이 아닌, 고대 근동의 보편적 전쟁 패러다임인 세계 질서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수호하는 신학적 기제의 이스라엘적 구현으로 재해석한다.⁹ 레위기 27장 28-29절은 헤렘의 본질을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함으로 규정한다. 헤렘 개념의 구약 전반에 걸친 의미 범위와 신명기적 용법에 대해서는 로핑크(Norbert Lohfink)가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¹⁰ 로핑크가 분석한 헤렘의 봉헌(consecration)은 헤렘 대상을 하나님께 바쳐 그분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행위로 본고가 말하는 신성 전유의 핵심을 이룬다. 밀그롬(Jacob Milgrom) 역시 레위기 27장의 헤렘을 성물(sancta)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 소유권 개념으로 읽으며, 이 소유권의 침해가 곧 “신성 침해”(מַעַל, *me'el*).

9 Stern, 윗글, 153.

10 Norbert Lohfink, “מַעַל”, in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rans. David E. Green (Grand Rapids: Eerdmans, 1986), 5:180-199.

마알)를 의미함을 지적한다.¹¹ 스텐의 분석에 따르면 헤렘은 파괴적 기능과 귀속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파괴는 귀속의 방식이며, 헤렘 대상은 인간의 영역에서 영구히 제거되어 하나님께 귀속된다.¹²

헤렘의 이러한 제의적 본질은 고대 근동의 비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은 메사가 느보를 점령한 뒤 그 주민을 진멸하고 전리품을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고 기록하며, 특히 여호와와 기물들을 끌어내어 그모스 앞에 두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헤렘이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정복 대상을 신적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봉헌 행위였음을 보여 준다.¹³ 따라서 헤렘의 핵심은 파괴 자체가 아니라 신적 소유로의 이전에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역헤렘 논리의 전제가 된다. 이스라엘이 헤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범하는 행위가 되며, 그 결과 침범자 자신이 하나님의 헤렘 처분 아래 놓이게 된다.

정복 대상을 승리한 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봉헌 논리는 고대 근동 전반에서 확인된다. 헨젤(Benedikt Hensel)이 정리하듯, 신아시리아 제국은 피정복민의 신상(神像)을 탈취하여 전리품으로 자국 신전에 안치함으로써 그 신의 복속과 정복자의 승리를 공표하였다(신탈취).¹⁴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 귀속 논리와 구약의 헤렘은 신학적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갈라진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는 타국 신의 소유를 탈취하여 자

11 Jacob Milgrom, *Leviticus 23-27* (Anchor Bible 3B; New York: Doubleday, 2001), 2391-2393. 밀그롬은 헤렘을 성물(sancta)에 대한 하나님의 배타적 소유권으로 규정하고, 그 침해가 “신성 침해”(חֲטָאתִי, 마알)를 구성한다고 본다.

12 Stern, 윗글, 13-16.

13 Milgrom, 윗글, 2392. 밀그롬은 메사 비문에서 헤렘 재산이 신에게 봉헌된 증거를 들어 헤렘의 봉헌적 성격을 지적한다.

14 Benedikt Hensel, “The Ark Narrative(s) of 1 Sam 4:1b-7:1/2 Sam 6 between Philistia, Jerusalem, and Assyria” in *Jerusalem and the Coastal Plain in the Iron Age and Persian Periods*, ed. Felix Hagenmeyer (Tübingen: Mohr Siebeck, 2022), 176-185.

기 신의 소유로 삼는 확장의 주체로 남는다. 반면 구약의 헤렘은 이미 하나님의 배타적 소유(전유)가 된 것을 인간이 침범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다. 헤렘 물건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에 속하므로(레 27:28), 그것을 사유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하는 행위다. 이 탈취의 결과, 침범자 자신이 하나님의 헤렘 처분 아래 놓여 진멸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신명기 7장 25절이 이방 신상을 불사르라 명령하고 그것을 취하는 자가 “그것과 같이 헤렘이 될 것”(신 7:26)이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논리다. 곧 신 탈취가 정복자가 타국 신의 소유를 빼앗아 자기 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논리라면, 구약의 헤렘은 하나님의 소유를 탈취한 자가 도리어 그 소유의 심판을 받아 스스로 헤렘이 되는 역전의 논리다. 바로 이 역전이 아간 서사에서 이스라엘이 헤렘의 집행자에서 대상으로 전략하는 역헤렘의 신학적 기반을 이룬다.

이 이중 구조는 역헤렘 신학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스라엘이 역헤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귀속됨을 의미한다. 스텐의 분석에 따르면, 아간이 헤렘 물건을 소유한 것은 거룩한 영역에 대한 침범이며, 이 침범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¹⁵ 이것이 역헤렘이 작동하는 신학적 기반이다.

2) 헤렘의 양방향 구조: 역헤렘의 정경적 근거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וְהָיִיתָ כְּהָרֵם כָּמוֹהוּ, 베하이타 헤렘 카모후, 필자주) “너도 그것과 같이 헤렘이 될 것이다”(신 7:25-26)는 헤렘 물건의 가정 반입을 금하며 내리는 경고다. 릴리가 지적한 끌어당

15 Stern, 윗글, 148-149. 스텐은 이 위협을 터부적 전염이 아니라, 거룩한 영역(헤렘)에 대한 침범으로 설명한다.

김의 메커니즘이 바로 이것이며,¹⁶ 헤렘된 것은 신성 영역에 속하므로 그것과의 접촉은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스텐은 이러한 헤렘 관행이 적의 신화화(mythicization, 적을 혼돈의 세력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진멸을 정당화하는 기제)를 통해 신학적 정당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본다.¹⁷

여호수아 6장 18절의 히필 동사 פָּרַחְתָּהּ(펜-타하리무, “너희 자신이 헤렘이 되지 않도록”)는 이 역전 논리의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 스텐이 정밀하게 분석한 것처럼, 호팔이었다면 타자에 의해 헤렘화됨을 의미했겠지만(“헤렘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히필은 자신의 행위로 헤렘이 됨을 의미한다.¹⁸ 이 히필 용법은 역헤렘이 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 자신의 행위가 야기하는 자발적-능동적 과정임을 문법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스텐이 지적하듯, 이 히필 타하리무는 직접목적어가 생략된 형태이며, 그 생략된 목적어는 곧이어 나오는 מַחֲנֶה יִשְׂרָאֵל(마하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영”)로 보충된다.¹⁹ 따라서 이 절은 헤렘을 집행해야 할 공동체가 도리어 헤렘의 대상이 됨을 문법적으로 명시한다.²⁰

신명기 13장 12-18절은 이방 신을 섬기는 내부 반역 성읍에 헤렘을 선고함으로써, 헤렘이 가나안 족속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명시한다. 넬슨은 아간 서사가 비록 도시 정복의 형식은 아니지만 배교한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헤렘 규정(신 13:12-18)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²¹ 이것

16 Lilley, 윗글, 176, n. 32.

17 Stern, 윗글, 224.

18 윗글, 148-149.

19 윗글, 148-149. 스텐은 히필 동사가 직접목적어를 늘 취하는 것은 아니며, 문맥상 보충되거나 이해될 때 생략되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본 절에서 생략된 목적어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본다.

20 LXX 독법과 본문비평적 판단 근거는 4장 2)절에서 상술한다.

21 Richard D. Nelson, *Joshua: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은 아간 서사의 법적 배경을 신명기 13장에서 찾는 유익한 관찰이다. 그러나 넬슨의 관찰을 역헤렘의 효력이 아간 개인에 국한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아간의 위반을 이스라엘 전체의 행위로 즉각 서술하고(“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 7장 12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렘이 되었다”고 공동체 전체를 헤렘 상태로 선언한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수 7:5)은 이 공동체적 역헤렘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서사적 증거다. 역헤렘은 아간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선언된 신학적 사실이며, 아간에 대한 국지적 집행은 그 공동체적 헤렘 상태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3) 기존 범주와의 차별성 및 역헤렘의 개념 정의

본격적인 정의에 앞서 한 가지 방법론적 전제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역헤렘’은 성경 본문 자체에 등장하는 용어가 아니라,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는 현상인 헤렘을 집행해야 할 공동체가 도리어 헤렘의 대상이 되는 역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하는 해석학적 모델이다. 따라서 본고의 과제는 본문이 ‘역헤렘’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요구함을 입증하는 데 있지 않고, 이 모델이 여호수아 7장의 여러 현상들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역헤렘(Reverse Hêrem)이란, 헤렘을 집행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공동체가 헤렘 대상과 동일시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헤렘 집행 대상이 되는 신학적 역전 구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본고가 제안하는 정의다. 이때 공동체가 헤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적 오염 전이가 아니

1997), 89. 넬슨은 아간 서사에 신명기 역사서의 헤렘 관심이 살아 있으며, 이 서사가 배교한 이스라엘 성읍에 대한 헤렘 규정을 반영한다고 본다.

라, 헤렘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결과이며, 침범의 원점인 아간과 그 소유를 제거함으로써 해제될 수 있다.

이 정의는 기존의 네 가지 범주와의 차별성을 통해 그 독자성을 드러낸다. 첫째, 언약 저주 신학(신 28장)은 심판의 사실을 설명하지만, 심판이 제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해명하지 못한다. 둘째, 카민스키(Joel S. Kaminsky)의 공동 책임 개념은 도덕적 연대의 논리를 분석하지만,²² 역헤렘에서 헤렘화는 도덕적 귀속이 아닌 신성 영역 침투라는 다른 층위에서 작동한다. 셋째, 서록은 헤렘이 언약적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전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²³ 역헤렘은 이 입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스텐도 헤렘화는 자동으로 확산되는 전달 속성이 아님을 명시하며, 역헤렘 역시 마술적 전염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헤렘은 서록의 언약적 관계론과 스텐의 신성 영역 침투론을 통합함으로써 더 정밀한 해명을 제공한다. 넷째, 역헤렘은 니디치(Susan Niditch)의 헤렘 모델들과도 차별된다. 니디치는 헤렘을 희생 모델, 정의 모델, 정화 모델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²⁴ 그러나 니디치의 세 모델은 모두 이스라엘이 헤렘의 집행자라는 전제 위에서 있으며, 이스라엘 자신이 헤렘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역전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역헤렘은 이 전환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니디치의 세 모델이 공유하는 전제를 역전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독자적 층위이다.

22 Joel S. Kaminsky,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67-90.

23 Sherlock, 윗글, 15.

24 Susan Niditch, *War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8-88. 니디치는 헤렘을 희생 모델(28-55), 신의 정의 모델(56-77), 정화 모델(82-88)로 분류한다.

3. 여호수아 7장의 서사 구조와 역헤렘의 단계적 전개

여호수아 7장의 서사는 역헤렘의 다섯 단계 운동으로 분석된다. [위반] → [헤렘화의 징후] → [역헤렘 선고] → [역헤렘 집행] → [공동체 회복]. 이 구조는 죄와 벌의 단순 도식이 아니라, 헤렘 제의의 내적 논리가 서사적으로 구현된 신학적 역학이다.

1) 위반의 발생(7:1) — 신성 영역 침투의 기점

서사는 충격적인 이중 주어로 시작된다. 실제 범죄자는 아간이지만 본문의 서술자는 즉각 이스라엘 자손을 주어로 설정한다. 이어 사용된 동사 **מָחַל** (마알, “신성 침해”)은 하나님께 귀속된 거룩한 것에 대한 신성 침해를 의미하는 제의법적 술어다(레 5:15; 26:40; 겔 14:13). 이때 마알은 거룩한 영역의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이므로 침범자 자신을 그 영역의 헤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인다. 글랜빌이 관찰한 것처럼, 서사는 아간과 이스라엘 사이의 주어를 의도적으로 교차시키면서 개인의 위반이 공동체 전체의 제의적 지위를 즉각 변화시킴을 미리 드러낸다.²⁵ 아간이 취한 세 품목인 시날 산 외투, 은 이백 세겔, 금덩이는 이미 신성 영역에 귀속된 헤렘 물건이었으며, 그 소유는 스톤이 분석한 신성 영역 침투의 논리를 즉각 발동시킨다.

2) 헤렘화의 징후(7:2-5) — 패전의 신학적 의미

아이 성 패전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라기보다, 이스라엘의 헤렘 상태가 서사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학적 징후로 읽을 수 있다. 본문은 이 패전의 원인을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으나(그 선언은 7장

25 Glanville, 윗글, 571.

11-12절에서 비로소 주어진다), 여리고의 승리(수 6장)가 헤렘 준수의 결과였음에 견주어 볼 때, 아이의 패전은 헤렘 위반이 이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기적으로 암시하는 복선으로 이해된다. 여호수아 7장 5b절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지라”는 진술은 민수기 14장 9절의 가나안 족속 묘사 언어를 이스라엘에게 역적용한 서사적 아이러니다. 이 언어적 역전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같은 처지에 놓였음을 드러내는 서사적 신호로 기능한다. 정복되어야 할 대상의 속성이 정복자에게 전이됨으로써, 이스라엘은 헤렘 집행자에서 헤렘 대상으로 이동하는 동화의 국면으로 전환된다. 먼로가 지적하듯, 헤렘의 올바른 집행이 이스라엘의 땅 위 존재를 보장하는 만큼, 그 실패는 이스라엘 자신의 존재 기반을 위협한다.²⁶

3) 역헤렘 선고(7:10-15) — 서사의 신학적 정점

여호수아 7장 10-15절은 이 서사의 신학적 정점이다. 하나님의 선언은 4중 구조로 전개된다. 범죄 확인 → 언약 파기 선언 → 헤렘 물건 소유 확인 → 역헤렘 선고. 핵심은 여호수아 7장 12b절의 **הָיָה לְהָרֵם** (하유 레헤렘,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이다. 여호수아 7:11-15에서는 **הָרֵם** (헤렘, “바쳐진 것”) 어근이 총 여섯 차례 집중적으로 반복된다.²⁷ 이 반복은 단순한 문체적 강조가 아니라, 본문이 전달하려는 법적, 신학적 논리를 구조화한다. 헤렘을 취한 자는 반드시 불태워야 한다는 처분이 본문의 핵심인데, 이는 그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곧 헤렘 물건

26 여호수아 7장 서사의 복합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72-95.

27 수 7:11-15의 **הָרֵם** 어근 용례는 11절(1회), 12절(2회), 13절(2회), 15절(1회)에 분포하며, 총 여섯 차례 반복된다. BHS 여호수아 7장 본문을 참조하라.

의 사유화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언약 위반이며, 그 결과 위반자 자신이 헤렘으로 처리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환된다. 동사 **הָרַק**(하야, '되다')와 전치사 **לְ**(레, '~으로')가 결합된 이 구문은 상태 변화의 완료를 나타낸다. 서록이 결론부에서 이스라엘 자신이 헤렘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는 바로 이 역전을 포착한 것이다.²⁸

4) 역헤렘의 집행 대상과 해제(7:5, 16-26) — 역헤렘 적용

역헤렘의 효력은 두 층위로 구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공동체적 발동이다. 아간의 위반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역헤렘 상태가 선언되고(수 7:1, 12), 그 즉각적 증거가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전과 전사자 발생이다(수 7:5). 본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헤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헤렘을 집행하는 자이지 집행 당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리어 적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헤렘의 대상이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신학적 징후다. 헤렘 전쟁의 의무를 부여받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역헤렘의 공동체적 효력을 증명한다.

둘째는 국지적 집행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염의 원점인 아간과 그 소유를 특정하여 제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역헤렘 상태에서 해제된다(수 7:24-26). 여기서 라합의 경우가 비교 근거가 된다. 라합은 집단적 헤렘 선언의 대상이었지만 개인적 조건(정탐꾼 보호)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헤렘의 집단적 선언과 개인적 적용 사이에 조건적 구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선례다. 역헤렘도 이와 같다. 이스라엘 전체에 선언된 역헤렘은 오염 원점에 국지화된 집행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역헤렘은 여리고 헤렘과 단순히 등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28 Sherlock, 윗글, 21.

으로 대응하는 구조이며, 그 효력의 범위와 집행의 방식에서 조건적 구별을 내포한다.

여호수아 7장 16-18절의 제비뽑기 과정인 지파 → 가족 → 가정 → 개인은 오염의 원점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절차다. 이 과정을 통해 아간이 특정됨으로써 국지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아간의 자백(7:20-21)은 서사 분석의 관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자백의 세 동사 **וַיֵּרָא**(와에르에, “내가 보았다”), **וַיִּתְּחַבֵּט**(와에흐메템, “내가 탐하였다”), **וַיִּקְרָח**(와에크라헴, “내가 취했다”)는 창세기 3장 6절의 어근 연쇄 **רָא**(라아, 보다)-**חָבַט**(하마드, 탐하다)-**קָרַח**(라카흐, 취하다)를 그대로 재현한다.

이러한 어휘 구조의 평행은 의도된 상호 텍스트성으로 읽힐 가능성을 지닌다. 아간 서사 전체가 창조, 타락 기사의 구조를 재현하도록 짜여 있고,²⁹ 피쉬베인의 정경 내적 해석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어휘 연쇄가 선행 텍스트와 연결되어 신학적 의미를 구축하기 때문이다.³⁰ 본고는 여호수아 7장이 창세기 3장을 직접 인용한다고 단정하지 않지만, 이 유사한 연속적 어휘 사용이 아간의 위반을 예언 타락과 유사한 신성 영역 침투로 읽도록 이끄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본다.

처형 장면(7:24-26)은 헤렘 오염의 완전한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처형 대상이 아간 본인을 넘어 그의 가족, 가축, 소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은 신성 영역으로부터 오염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다.

5) 공동체 회복(7:26b) — 역헤렘의 해제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다.” 아간과 그 소유가 제거되자 공동체의 역헤렘 상태가 즉각 풀렸다. 이 즉각성은 중요한 사실

29 Stern, 윗글, 153.

30 Fishbane, 윗글, 286-289. 피쉬베인은 형식적 인용 표지가 없어도 공유된 어휘의 ‘가상 인용(virtual citation)’이 본문 간 의도적 해석 관계를 성립시킨다고 본다.

을 알려 준다. 역헤렘은 저절로 퍼지는 오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위가 바뀐 것이다. 지위가 바뀐 것이므로 오염의 원점을 제거하면 즉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

이 회복은 두 가지 면에서 확인된다. 첫째는 신학적인 면이다. 레위기 27장 28-29절에 따르면 헤렘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아간과 그 소유를 헤렘으로 처리한 것은 오염원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행위다. 이를 통해 공동체는 오염에서 벗어나 정화된다. 즉 역헤렘 집행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행위다.

둘째는 서사적인 면이다. 역헤렘이 해제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수 8:1)고 말씀하시며 아이성을 이미 נִתְּנָה בְּיָדֵינוּ(나타트티 베야드카,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2인칭 완료시제로 말씀하신다. 아이성 패전 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된”(수 7:5) 것과 정반대다. 빼앗겼던 헤렘 집행자의 자리가 완전히 돌아온 것이다. 이어지는 아이성 함락(수 8:28-29)은 역헤렘 상태에서는 할 수 없었던 헤렘 집행이 다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결국 역헤렘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학적 통로다.

4. 역헤렘의 신학적 메커니즘: 침투, 선고, 정화

앞의 3장이 여호수아 7장의 서사 순서를 따라 역헤렘의 다섯 단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폈다면, 본 장은 그 서사가 전제하는 제의법적 논리 자체인 침투가 어떻게 선고와 정화로 이어지는가를 층위별로 분석한다. 두 장은 같은 본문을 다루되 서사적 순서와 신학적 기제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1) 신성 영역 침투의 구조: 서록, 스텐 논쟁의 해소

역헤렘 비판의 가장 예리한 지점은 서록의 반론이다. 서록은 헤렘은 전염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물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주장한다.³¹ 이것은 역헤렘의 오염 전이 메커니즘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두 입장이 대립하지 않음을 논증한다.

본 논문은 헤렘화를 자동으로 확산되는 전달 속성으로 보지 않는다. 헤렘된 것과의 접촉이 위험한 까닭은 그것이 신성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위험의 신학적 성격은 스텐이 분석한 신화화(mythicization)의 논리와 같은 지평에 있다.³² 서록도 헤렘은 마술적 혹은 유사 자동적 의미의 전염이 아니었다라고 단언한다.³³ 역헤렘 역시 마술적 전염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클라완스(Jonathan Klawans)가 구분한 제의적 부정(ritual impurity)과 도덕적 부정(moral impurity)의 틀을 빌리면, 아간의 침해로 공동체에 발생한 것은 접촉을 통해 전이되는 제의적 부정이 아니라, 언약 위반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부정,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동체가 처한 상태의 변화로 규정한다.³⁴ 두 학자의 차이는 설명의 층위에 있다. 서록은 헤렘화를 언약 관계의 파기라는 도덕법적 층위에서 해명

31 Sherlock, 윗글, 15.

32 Stern, 윗글, 224. 스텐은 헤렘의 위험을 적의 신화화(mythicization)를 통한 진멸의 정당화라는 틀에서 논한다.

33 Sherlock, 윗글, 15.

34 Jonathan Klawans,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26-31. 도덕적 부정과 제의적 부정의 구분에 대해서는 또한 Christine E. Hayes, *Gentile Impurities and Jewish Identities: Intermarriage and Conversion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8-29를 보라.

하고, 스텐은 신성 영역으로의 침투라는 제의, 우주론적 층위에서 해명한다.

역헤렘은 이 두 층위를 통합하는 해석학적 모델이다. 이 통합이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면, 관계적 위반이 어떻게 즉각 영역적 침범으로 전환되는지 그 매개 고리를 밝혀야 한다. 매개는 헤렘 물건 자체의 존재 방식에 있다. 헤렘은 레위기 27장 28절이 규정하듯 이미 하나님께 귀속된 “지극히 거룩한” 사물이므로, 그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평범한 소유물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헤렘 물건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동시에 두 가지 상태를 도출한다. 언약의 차원에서는 공동체가 위임받은 의무(헤렘 집행)에 배신하는 행위이며, 제의의 차원에서는 그 배신의 결과물인 사물 자체가 이미 신적 소유의 경계 안에 있으므로 소유자가 자동으로 그 경계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다. 곧 언약 위반이 영역 침범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헤렘 물건이라는 매개를 통해 한 행위가 언약적 배신과 제의적 침범이라는 두 신학적 술어로 동시에 기술되는 것이다. 아간이 헤렘 물건을 소유한 순간, 그는 언약적 배신(서록의 관계론)을 범하는 동시에 신성 영역에 침투하였고(스텐의 패러다임), 그 침투의 효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제의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여호수아 7장 1절이 아간의 행위를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행위로 서술하는 것도 이러한 확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두 설명은 역헤렘의 서로 다른 국면을 담당한다. 서록의 관계론은 왜 언약 파기가 공동체를 심판 대상의 지위로 이끄는지를 밝히고, 스텐의 침투 패러다임은 그 전환이 어떻게 헤렘 물건의 불법 점유라는 구체적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를 밝힌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역헤렘은 이 두 설명을 결합하여, 관계적 근거(왜)와 제의적 기제(어떻게)를 하나의 해석학적 모델 안에 통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의 침투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제의적 지위로

www.kci.go.kr

확장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언약적 연대”라는 도덕법적 개념만으로 답하는 것은 확산의 사실을 명명할 뿐 그 작동 방식을 해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여호수아 7장 자체가 제시하는 공간적 거룩성의 논리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아간은 자신이 취한 헤렘 물건을 이스라엘 진영(마하네) 안, 곧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수 7:21). 그런데 진영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으로 규정된다. 신명기 23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진영 가운데 행하시므로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부정한 것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하라고 명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진영을 떠나신다고 경고한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배타적 소유인 헤렘 물건이 진영 안에 은닉된 순간, 공동체의 거룩한 공간 전체가 탈취한 신적 소유를 품은 부정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는 결정적 고리가 드러난다. 헤렘은 하나님의 전유 영역을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헤렘 물건을 사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유 영역을 공동체 내부로 무단 이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단 이전은 아간 개인의 죄에 머물지 않고, 그 물건이 놓인 언약 공동체 전체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진영의 거룩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머무는 조건인데, 침탈된 신적 소유가 진영 안에 현존하는 한 그 조건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곧 개인의 침해가 공동체의 거룩성 붕괴로 이어지고, 거룩성을 잃은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전환의 귀결이 곧 임재의 철수라고 할 수 있다. 여호수아 7장 12절은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물러선 까닭을 “그들도 헌신물이 됩이라”라고 밝히면서, 곧이어 “너희가 그 헌신물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본문이 이스라엘의 헤렘화와 임재 철수를 하나의 조건 안에 묶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진영 안에 헤렘 물건이 현존하는 한 하나님은 함께하실 수 없고, 임재가 떠난 공동체는 더 이상 헤렘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수 없으며,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렘 대상 쪽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른바 ‘아간화’된 것은 접촉에 의한 자동적 오염이나 추상적 연대의 결과라기보다, 탈취된 신적 소유가 공동체의 거룩한 공간 안에 현존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신성 전유를 침해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설명하는 편이 본문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곧 개인의 차원에서 신적 소유를 탈취한 자가 헤렘 대상이 된다는 논리(신 7:26)가, 진영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공동체의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카민스키가 분석한 공동 책임 개념은 역헤렘의 확산 기제를 대체한다기보다, 이 공간적 거룩성의 논리가 전제하는 언약 공동체의 단일성을 도덕법적 층위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록이 헤렘을 언약 관계의 파기로 규정한 것 역시 역헤렘과 대립하기보다 역헤렘이 작동하는 관계적 조건을 밝혀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역헤렘의 확산은 마술적 전염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의 오염과 임재 철수라는 제의적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연대적 책임과 관계 파기는 이 제의적 논리를 각각 도덕법적, 관계적 층위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자리매김된다.

2) 여호수아 6장 18절과의 신학적 연계 및 본문(MT, LXX) 문제

여호수아 7장의 역헤렘이 서사적 충격이면서도 신학적 설득력을 갖는 것은 여호수아 6장 18절의 선행 경고 덕분이다. 이를 필자의 헤렘 강조적 관점으로 사역하면 “너희는 헤렘을 멀리하여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가지면, אֶת־מִחְנֶה יִשְׂרָאֵל (에트-마하네

www.kci.go.kr

이스라엘, “이스라엘 진영”)으로 헤렘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할까 하노라”로 읽힐 수 있다. 직접목적어 표시 תָּנִיחַ (에트)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명시적 목적어로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여호수아 6장 18절의 경고가 앞서 살핀 아간 서사의 다섯 단계 전체를 감싸는 틀로 기능함으로써, 본문은 역헤렘 신학을 치밀하게 서사로 구현한다.

한편 LXX은 이 구절을 직역하지 않고 $\epsilon\nu\theta\nu\mu\eta\theta\acute{\epsilon}\nu\tau\epsilon\varsigma$ (엔뒤메텐테스, “마음에 품어 탐하다”)로 옮겨 “혹 너희가 탐하여 헤렘 가운데서 취하지 않도록”으로 읽는다. MT가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라고 경고하는 자리에서, LXX는 “탐하지 말라”는 윤리적 권면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7장 21절에서 아간이 고백하는 $\text{הָמַחַ$ (하마드, “탐하다”)와 같은 어근을 6장 18절에 미리 가져다 쓴 것으로, 번역자가 저본을 다르게 읽었거나 두 본문을 의도적으로 맞춘 결과로 보인다.³⁵ 결국 LXX는 “집행자가 헤렘 대상이 된다”는 MT의 날카로운 역전의 긴장을 “탐욕을 조심하라”는 도덕적 경고로 부드럽게 바꾸어 놓았다. MT의 신학적 무게가 더 무겁고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이므로, 역헤렘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본래적 독법은 MT다. 이러한 차이를 곧바로 번역자의 오독으로 단정하기보다, 그것이 MT와 다른 히브리어 저본(Vorlage)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헤렘 개념이 전쟁 제의에서 점차 멀어지던 헬레니즘기 유대 공동체의 이해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타당하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발적 헤렘화라는 한층 난해한 함의를 보존한 것은 MT 쪽이다. 앞서 살핀 대로 MT의 히필 용법은 헤렘의 집행자가 자신의 행위로 스스로 헤렘이 됨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신학적으로 정밀하며, 더 어려운 독법을 본래적인 것으로 보는 본

35 마소라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ed., K. Elliger and W. Rudolph, 3rd.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7), 362. 칠십인역 본문은 Rahlfs,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35, 1979), 362. 참조.

문비평의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본래적 독법일 개연성이 높다.³⁶

이처럼 LXX가 어근을 조정한 것은, 역으로 6장 18절과 7장 21절의 연결을 고대 번역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6장 18절이 신명기적 신학을 반영하는 구절로 평가되더라도, 이는 오히려 본문이 역헤렘의 원리를 아간 서사 이전에 배치하여 독자가 그 경고에 비추어 위반을 읽도록 설계했음을 뒷받침한다.

3) 역헤렘 집행의 역설: 헤렘으로 헤렘을 해제함

역헤렘 신학의 가장 역설적 측면은 해제 방식에 있다. 역헤렘 상태의 공동체는 헤렘 오염원에 대해 다시 한번 헤렘을 집행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벗어난다. 헤렘으로 헤렘을 해제한다는 이 역설은 레위기 27장 28-29절의 논리로부터 이해된다. 헤렘된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아간의 처형은 헤렘 오염원을 신성 영역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오염을 제거하는 제의적 행위다. 와일리(Henrietta L. Wiley)가 분석한 것처럼, 헤렘된 것은 인간이 관리할 수 없는 신성의 영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며,³⁷ 공동체는 그 이전을 통해 신성 영역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화를 경험한다. 이 지점에서 역헤렘의 해제는 니디치의 희생 모델(신께 바침)이나 정화 모델(오염 제거) 중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레위기 27장 28-29절의 귀속 논리 안에서 제거는 곧 귀속이므로, 역헤렘 집행은 두 모델을 통합한다. 즉 오염원의 제거가 동시에 그 오염원을 신성 영역으로 귀속시키는 행위인 것이다.

36 Stern, *The Biblical Hērem*, 148-149.

37 Henrietta L. Wiley, "The War Herem as Martial Ritual Service and Sacrifice", *Proceedings EGL & MWBS* 25 (2005), 72.

5. 아간 패러다임의 정경적 위치와 거시적 함의

1) 신명기 역사서 서사 안에서 아간 서사의 구조적 기능

여호수아 6장(여리고 승리) → 여호수아 7장(아간 위기) → 여호수아 8장(아이 성 재승리)의 3장 구조는 신명기 역사서의 여러 심판 본문에서 확인되는 헤렘 준수 위반의 패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하나의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³⁸ 사사기 2장 10-23절의 반복 공식에서 배교의 핵심인 이방 신 숭배, 즉 헤렘 대상과의 동화를 고려할 때, 역헤렘의 논리는 신명기 역사서의 심판 서사 전체를 읽어내는 하나의 해석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구조적 기능은 역헤렘이 해석자가 외부에서 부과한 비유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범주임을 보여 준다. 앞서 살핀 대로 신명기 13장 12-18절은 헤렘이 가나안 족속에게만이 아니라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율법적 장치임을 규정하며, 아간의 위반은 바로 이 율법적 가능성을 서사로 실현한다. 한 개인이 헤렘 물건을 전유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배교한 성읍과 같은 지위에 놓이고, 그 결과 헤렘을 집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헤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역헤렘은 본문이 신명기 율법의 논리를 아간 사건에 적용한 결과이며, 본문 자체에 내재한 신학적 구조다.

글랜빌은 신명기 역사서의 헤렘 본문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지 가나안 족속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가나안은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을 지시하는 은유적 범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³⁹ 아간이 가나안의 것(헤렘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가나안인이 되고 역헤렘이 되었듯이, 신

38 Nelson, 윗글, 102. 넬슨은 아간 사건을 죄가 패배를, 죄의 제거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신명기 역사서의 반복 패턴의 한 사례로 본다.

39 Glanville, 윗글, 558.

명기 역사서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관습과의 동화를 통해 국가적 역해렘의 조건을 형성한다. 이것이 글렌빌이 이스라엘 자신의 유배가 정복 서사의 지평선에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할 때의 의미다.⁴⁰

2) 거시적 적용 가능성과 방법론적 한계

아간 패러다임에서 확립된 역해렘의 다섯 단계는 ① 위반(신성 영역 침투) → ② 해렘화의 징후 → ③ 역해렘 선고 → ④ 역해렘 집행 → ⑤ 정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이다. 이들은 신명기 역사서가 그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해석 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글렌빌이 이미 이 귀결점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적용은 본문마다 해렘의 유형별 특성과 해렘 어휘 사용의 유무가 다르므로, 증거의 성격에 따라 층위를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층위인 여호수아 7장은 해렘 어휘와 서사적 증거를 모두 갖춘 일차 본문이다. 둘째 층위인 에스라 10장 8절의 **יִחַרְיָם**(야호람, “적물하고”)은 해렘 어휘가 전쟁 맥락을 벗어나 공동체 내부의 연약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제재로 전용된 사례로서, 역해렘 신학의 역사적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휘적 교량이다. 셋째 층위인 열왕기하 17장과 24-25장은 해렘 어휘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이 층위를 어휘에 근거한 논증이 아니라, 신학적, 제의적 연속성에 근거하여 본문 안에서 찾아지는 깊은 구조로 그 주장의 범위를 분명히 제한한다.

요컨대 본고의 적극적 주장은 여호수아 7장에 한정되며, 에스라 10장은 그 어휘적 연장선에, 열왕기서로의 확대는 앞으로 검증을 요하는 구조적 가설로 제시된다. 각 본문에 대한 독립적인 신학적 분석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선다.

40 윗글, 554.

6. 결론

본 논문은 여호수아 7장 아간 서사에서 헤렘을 집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헤렘의 대상이 되는 신학적 역전 구조를 역헤렘(Reverse Hêrem)이라는 해석적 분석 틀로 체계화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핵심 성과는 세 가지다.

첫째, 역헤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혔다. 아간이 헤렘 물건을 손에 넣은 순간,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이 침범이 이스라엘 전체를 헤렘 상태로 끌어들인다. 이것은 저절로 퍼지는 오염도 아니고, 단순한 언약 위반도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한 자가 그 영역의 처분 아래 놓인다는 제의적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서록은 이것을 언약 파기로, 스티븐은 신성 영역 침투로 각각 설명했는데, 이 두 설명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신성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그 침범의 결과로 공동체 전체가 헤렘 상태에 들어간다. 역헤렘은 이 두 설명을 하나의 논리로 통합한다. 또한 역헤렘은 기존 헤렘 연구들이 공유하는 “이스라엘은 헤렘의 집행자”라는 전제를 뒤집는다는 점에서, 기존 범주가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해석의 자리를 연다.

둘째, 여호수아 6장 18절의 히필 동사가 이 역전을 문법적으로 뒷받침함을 확인했다. 이 구절은 헤렘 물건을 취할 경우 “너희 자신이 헤렘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데, 히필 동사가 수동이 아닌 능동-재귀형이라는 점은 이스라엘이 외부의 힘에 의해 수동적으로 헤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헤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문법 자체가 말해 준다. 더 나아가 이 동사의 생략된 목적어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라는 사실은, 한 개인의 위반이 공동체 전체를 헤렘 대상으로 만든다는 역헤렘의 논리를 본문이 미리 선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역헤렘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통로임을 논증했다. 아간의 자백(수 7:20-21)에 나타나는 “보고-탐하고-취했다”는 어휘 연쇄가 창세기 3장 6절의 에덴 타락과 평행을 이루는 것은, 역हे렘이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신학적 사건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간과 그 소유에 대한 헤렘 집행은 레위기 27장 28-29절의 귀속 논리에 따라 오염원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정화의 행위다. 이 정화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수 8:1)고 명하시며 헤렘 집행자의 지위를 돌려주신다. 이어지는 아이성 함락(수 8:28-29)은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서사가 확인하는 장면이다. 역हे렘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정화와 회복의 신학적 통로다.

역हे렘은 여호수아 7장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신학적 패턴이다. 글랜빌, 먼로, 서록, 릴리, 스톤이 각자 따로 포착했던 현상들인 헤렘화 관찰, 스스로 초래한 헤렘 진술, 이스라엘이 헤렘이 되었다는 선언, 끌어당김의 원리, 히필 문법 분석을 역हे렘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논리로 통합하여 설명한다. 이것이 이 범주의 학술적 근거다.

향후 연구 과제는 이 해석적 틀을 신명기 역사서와 제 2 성전기의 다른 심판 본문들에 적용하는 작업이며, 이 주제는 각 본문의 독립적 분석을 요하므로 후속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동혁, “헤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구약논단」 81집 (2021년 9월), 131-154.
 김상래, “아이 성 정복 실패가 진정 아간 때문만인가? — 여호수아 7장 2-5절에 대한 비평적 분석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46집 (2012년 12월), 72-95.
 Cross, Frank Moore.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Press, 1985).
 Glanville, Mark R. “Hērem as Israelite Identity Forma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www.kci.go.kr

83 (2021), 547-572.

- Hayes, Christine E. *Gentile Impurities and Jewish Identities: Intermarriage and Conversion from the Bible to the Talmu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Hensel, Benedikt. "The Ark Narrative(s) of 1 Sam 4:1b-7:1/2 Sam 6 between Philistia, Jerusalem, and Assyria: A New Approach for a Historical Contextualization and Literary-Historical Classification", Felix Hagenmeyer(ed.), *Jerusalem and the Coastal Plain in the Iron Age and Persian Periods* (Tübingen: Mohr Siebeck, 2022), 163-191.
- Kaminsky, Joel S. *Corporate Responsibility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Klawans, Jonathan, *Impurity and Sin in Ancient Juda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Lilley, J. P. U. "Understanding the Herem", *Tyndale Bulletin* 44.1 (1993), 169-177.
- Lohfink, Norbert. "חֵרֶם",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and Heinz-Josef Fabry(eds.), Trans., David E. Green,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5 (Grand Rapids: Eerdmans, 1986), 180-199.
- Milgrom, Jacob. *Leviticus 23-27*. Anchor Bible 3B (New York: Doubleday, 2001).
- Monroe, Lauren A. S. "Israelite, Moabite and Sabaeen War-Herem Traditions", *Vetus Testamentum* 57 (2007), 318-341.
- Nelson, Richard D. *Joshua: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 Niditch, Susan. *War in the Hebrew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Römer, Thomas. *The So-Called Deuteronomistic History* (London: T&T Clark, 2005).
- Sherlock, C. "The Meaning of HRM in the Old Testament", *Reformed Theological Review* 42 (1983), 13-24.
- Stern, Philip D. *The Biblical Hērem* (Brown Judaic Studies 211; Atlanta: Scholars Press, 1991).
- Wiley, Henrietta L. "The War Herem as Martial Ritual Service and Sacrifice", *Proceedings EGL & MWBS* 25 (2005), 69-76.

검색어

역헤렘, 헤렘, 아간 서사, 신성 영역 침투, 공동체 정화

www.kci.go.kr

[ABSTRACT]

**Reverse Ḥērem Interpretation of the Achan Narrative
(Joshua 7):
The Reversal of the Executor into Ḥērem and the
Theology of Communal Purification**

Eun-Pyung Ju
Sungkyu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logical reversal that lies at the heart of the Achan narrative in Joshua 7, in which Israel, the community commanded to execute the ḥērem, becomes itself the object of ḥērem. While previous scholarship has observed aspects of this phenomenon in isolation, no study has systematized it as a coherent interpretive framework. This article therefore proposes “Reverse ḥērem” as a hermeneutical model and tests its explanatory power against the text.

Methodologically, the study integrates cultic-legal analysis, narrative criticism, and inner-biblical intertextuality.

The central finding concerns the mechanism of the reversal. Contrary to interpretations that presuppose an automatic or contagious transfer of impur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mmunity’s ḥērem status arises from a covenantal and cultic process. Because ḥērem objects belong exclusively to God, their private appropriation constitutes an unauthorized transfer of divine property into the camp. This breach compromises the holiness of the camp, which is the very condition of divine presence, and the resulting withdrawal of that presence (Josh 7:12) reduces the community

www.kci.go.kr

from executor to object of judgment.

The article further demonstrates that Reverse Ḥērem is not merely punitive. The removal of the contaminating source and the subsequent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 confirmed by the new divine commission in Josh 8:1 and the successful execution of ḥērem at Ai (Josh 8:28-29) — demonstrates that Reverse Ḥērem functions not merely as judgment but as a theological passage toward communal purification and recovery. Reverse Ḥērem thus offers a useful interpretive model for reading certain judgment texts 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key words

Reverse Ḥērem, ḥērem, Achan Narrative, Divine Sphere Penetration,
Communal Purification

투고일: 2026년 7월 22일

심사일: 2026년 9월 6일

게재 확정일: 2026년 9월 7일

www.kci.go.kr